

데스크 시국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우리는 권쟁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만큼의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게 아니예요? 그게 (원전 오염수) 안전하다고 하면 일본은 자기나라에서 해결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하길 원하는 국민이 없잖아요. 내 새끼가 먹는 거예요. 내 새끼가 살아가야 할 바다입니다.”

지난 28일 찾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동. 한 상인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밝혔다.

“후손에게 청정바다 물려주고 싶어”

수산물동내 수족관과 매대마다 제철을 맞은 전어와 꽃게를 비롯해 조개류와 생선 등 갖은 해산물들이 진열 돼 있었다. 그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때 매출 감소로 ‘엄청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여긴다. 최근 들어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그는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해야 할 우리의 권리도 못 찾아먹고 그냥 굵신굵신 끌려가는 입장”이라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진짜 안전하다고 하면 밖으로 뿌릴 것이 아니라 자기나라에서 해결해야

“내 새끼가 먹고, 살아가야 할 바다입니다”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처리수’로, 중국은 ‘핵 오염수’로 표기하고 있다.)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핵종(核種)을 기준치 이하로 걸러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우선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 태도가 아쉽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해양오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자주적인 목소리로 어필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안전하다’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거드는 듯한 언행을 해왔기 때문이다. 방류 당일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방류 찬성 또는 지지 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공감을 얻지도 못했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는 ‘무해론(無害論)’의 반복된 홍보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산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비판하는 이들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갈라치기의 시가 뽀얍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일본은 자국 어민들의 해양 보류로 발생할 수 있는 ‘소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면서도 한국 등 주변국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즘 제2차 세계대전중 비밀리에 진행된 미국 핵폭탄 제조 계획 ‘맨하탄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감독 크리스토퍼 놀란)가 상영되고 있다. 원폭 개발후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다 매카시 광풍에 휘말려 공산주의자로 몰리며 정치적인 박해를 겪는 이본 양자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애칭) 일대기를 다룬 영화다. 얼마 전에는 ‘나가사키의 종(鐘)’이라는 책을 우연하게 접했다. ‘원자폭탄 피해자인 방사선 전문가가 전하는 오펜하이머 리포트’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나가사키 의대 부속병원 의사였던 나가이 다카시(永井隆·1908-1951)가 썼다. 1945년 8월 9일, 규슈 나가사키 ‘플루토늄 원폭’ 투하때 그는 병원에서 일하다 피폭돼 중상을 입었지만 원폭 피폭자를 치료했다. 이후 폭심지(爆心地·폭발 중심지)에 ‘여기당(如己堂)’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의미)이라는 율막을 짓고 살면서 잔류 방사선의 영향을 조사했다. 현재의 일본은 그가 전하고자 했던 원폭 피해 실태 고발과 반전·평화 메시지를 망각한 듯 보인다.

국민들의 오염수 불안감 해소해야

원폭개발 영화와 나가사키 리포트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자력은 현대판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다. 한편으로 원자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가 또다른 한편으로 원자력 발전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막대하다. 자칫 핵 오염된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속 디스토피아가 실현될 수도 있다. 결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국가의 미래 견인은 정치지도자의 몫이다. 청정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수산물 유통 상인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한국환  
경명학 박사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의 갈등 속에 세계 경제가 아직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3%로 올렸지만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년 연속 하향, 결국 1.4%로 또 낮췄다. 이렇듯 우리 경제 환경이 아주 낮게 평가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의 직업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최근(2020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부동의 1위는 공무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공무원은 비교적 높은 연봉, 안정적 신분, 연금이 보장되어 선호도가 아주 높았다. 그런데 이젠 사회 흐름이 변하여 최근엔 선호하는 직업 1위는 의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부터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 타 직업에 비해 정제되고 연금 고갈 문제로 연금 재조정(많이 내고 적게 받음)이 되자 자연히 공무원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는 해마다 철새가 먹이를 찾아 옮겨 다니듯 사람들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의대에만 긴 줄 선다면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사례가 있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입학 즉시 휴학하는 사례가 입학생 전체의 6.2%(225명, 4년 사이 3배 증가)에 달한다. 그 이유 대부분 ‘의대에 다시 입학할 위해서’라고 한다. 타 대학에서도 ‘중도 탈락’이 증가 추세인데 의·치학 계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을 위한 ‘초등 의대생’ 등장이 큰 이슈다.

세계는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초연결과, 초지능(인공지능 AI)을 특장으로 하여 자율주행, 로봇공학, 드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빅데이터, 3D프린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더 확장된 직종시장에서 학생들의 ‘의사 지원 열풍’ 현상을 보면 특기와 능력을 살려 꿈을 펼쳐가는 것보다 오직 ‘의사’ 되는 것을 최고 성공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 사실 본인이 의사를 선호하는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엘리트 젊은이들의 편향적인 의대 지원 현상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의사의 꿈이 ‘소득 최상위 계층을 위한 것’이나 히포크라테스, 나 이팅게일 선서의 정신으로 ‘의료 봉사’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의대의 편향적 지원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그 사회와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도를 보자. 인도에는 ‘천재들은 의

대 말고 공대를 간다’라는 말이 있다. 현재 구글·MS·IBM·어도비·마이크론·트위터·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도 출신이다. 인도의 젊은 엘리트들이 대부분 공대를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시대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간 유기적 관계를 맺고 교류·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인재가 더 많이 요구되며 정보 공유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 세계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르는 무한 생존 전략 시대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 후 산업화와 민주화·정보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했지만 후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 10대 경제 대국에 ‘30-50클럽’ 회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구나 선진국(2021년)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살아남기 위한 ‘생존시대’를 넘어 더불어 함께 하는 ‘공존시대’를 추구해야 할 위치다.

국제적 흐름 속에 국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며 유망산업으로 주목 받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 등 첨단기술(6T)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가는 외면하고 오직 ‘의대 편향 지원’이 계속된다면 과연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이 물음이 이 시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매미와 나무

직장 동료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자신 없는 듯 아마 그러겠조, 한다.

“매미 열 개를 한 분대라 치고 자, 오늘은 1분대 열 마리 출발,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 2분대 출발, 자 다음 분대 준비하고. 착!착!착!”

군대처럼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을 매미들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아니면 매일 매일 제각각 나무로 올라올까?”

직장 동료는 매일 나오는 것이 더 맞을 듯 싶다고 말을 바꾼다.

“여름 내내 일주일 단위로 순서에 맞춰 올라온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도대체 몇 마리야?”

나는 얼른 계산을 해낸다. 여름을 3개월로 치면 90일이다. 매미들이 7일 간격으로 세상에 나오면 약 13개 분대가 나올 수 있다. 한 분대를 10마리로 치면 한 해 여름에 한 나무에서 삶을 노래한 매미 수가 대충 130마리다.

나무 아래 땅속에도 내년에 나올 130마리, 그 후년에 나올 130마리, 이렇게 7년간 있을 공병이가 910마리인데 계산 편하게 900마리로 하자. 물론 어렵잡이 대충한 숫자다. 땅을 팠을 때 나무뿌리 주위로 공병이들이 우글우글하게 모여 있는 장면이 떠오른다. 순간 내가 공병이처럼 7년을 땅속에 웅크리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든. 소름이 돋았다.

직장 동료는 내 계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똘 그런 생각을 하며 실실, 웃었다. 땅속도 그렇지만 나무 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을까.

페터 블레벤의 ‘나무 수업’에 이런 사실이 적혀 있다.

“나무 생물학자 마르틴 고스너 박사가 바이에른 숲 국립공원을 찾아가 키가 52미터에 (사람 가슴 높이)의 직경이 2미터인 수령 600여 년의 고목에 약을 살포하였다. (중간 생략) 죽어 나자빠진 곤충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졌고, 그 광경을 통해 엄청난 종이 그 나무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려 257종, 2041마리의 곤충이었다.”(170 페이지)

이런 사실은 곤충이 활동하지 않는 겨울철에도 그에 못지않은 유충이 땅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 위와 땅속에 많은 곤충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상상이 뭔가 자연의 신비가 보일 듯 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혹 우리 인간도 지구에서, 더 나가 우주에서 매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인간 몸통으로 사는 것을 백 년으로 치고, 인간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나 뭐 다른 것으로 매미 유충의 7년에 해당하는 7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인간이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인간의 삶이란 것이 짧기도 하고 암울하고 기가 막힐까.”

가만히 듣고 있던 직장 동료가 먼저 일어섬서 허마디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연간 글 쓰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별걱정을 다해요.”

모든 매미가 7년에 한 번 세상에 나와 7일간 울어대는 것은 아니다. 1년이나 3년 혹은 4년 그리고 아주 소수는 17년 주기로 나오는 매미도 있다. 알도 200-600 개씩 낳는다. 나무에 사는 다른 곤충들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 나무 위의 세상과 나무 아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며 서로 공존하는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보았다.

社說

농수산물 선물가격 상향... 어민들 숨통 트일까

오늘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향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부터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설·추석 명절에는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 이번 추석 명절부터는 농수산물 관련 선물은 3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설·추석 명절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따라서 이번 추석이 9월 29일인 만큼 9월 5일

부터 10월 4일까지는 농수산물 관련 선물은 30만 원짜리까지 가능하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침체된 수산업계에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 줄 만한 호재다. 공직사회부터 추석 선물로 수산물을 선택한다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원전 수산물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 농축산업계도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반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해 일체의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잘 지키고 철저히 체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업계를 돕겠다는 의미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선택의 폭을 넓힌 만큼 최대한 활용하되 원칙은 지키는 유연한 자세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 과도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이하 에너지공대) 교수들이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에 대한 교수 입장문’을 냈다.

교수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총장 해임 건의’를 포함한 산업부의 감사결과 발표로 컨텍에 대한 오해와 걱정에 우리 대학 교수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개교 전부터 불안정한 시스템과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이끌어온 초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것은 규정 위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말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다수의 비위 사항을 적발하고, 총장 해임 건의와 함께 징계(6명), 주의경고(83건), 환수(5900만 원)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에너

지공대 이사회에 요구했다.

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에 근거해 지난해 3월 개교한 에너지 특성화 대학이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에너지 과학기술 고급 인재 양성과 국내외 및 산업계 교육·연구 교류 촉진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에너지공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 또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빌미로 결코 에너지공대를 타 대학과 강제로 통합하거나 폐교를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어서도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본래 대학 설립 취지에 맞게 미래 에너지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에너지 분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 동량(棟樑)을 길러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無等鼓

대한민국이 매카시즘 광풍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을 시작으로, 육사와 국방부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항일 독립운동가인 이들이 각각 중국·북한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매카시즘이란 1950년대 초반 미국을 휩쓴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반(反)공산주의 열풍을 말한다. 지금은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 독립운동가들만 해도

진 듯 했다. 정율성 선생에 대한 각종 기념사업도 이 즈음 시작됐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시작됐고, 이후 35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논란은 없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도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정부가 홍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난센스’다. 실제 감정이 연해주와 만주 등지에서 국외 무장 독립운동을 벌였던 독립운동가들은 항일

신 매카시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 연설을 발단으로,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 색출 열풍이 불었다. 이는 미국의 흑역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운동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념이 아닌 ‘현 지 지원’을 얻기 위해 소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반공(反共)과 북풍(北風)’이 보수 정권의 ‘무기’로 활용됐지만,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으로 중국과 소련 등 공산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매카시즘은 사라

린·중국 공산당 등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아픈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럴진대 이를 매카시즘으로 몰아 독립운동가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반쪽’으로 만드는 일이다.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기 전까지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념의 잣대는 거두어야 한다. 다시 국제사회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신 냉전체제로 빠져든 만큼 신 매카시즘에 대한 우려가 커 보인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